

Japan Weekly Digest

2011. 8. 6. ~ 8. 12.

□ 금주의 이슈

- 일본정부 경제성장을 대폭 하향조정
- 일본기업 설비투자 크게 증가

□ 일본기업전략

- 스미토모고무 태국 거점, 세계 최대급 타이어공장으로

□ 경제산업성 동향

- 산업구조심의회, 신용합산업 창출을 위한 6대 중점 분야 액션프로그램 결정
- 라이프엔딩산업에 관한 연구결과 공표

□ 보고서 리뷰

- 2011년판 JETRO 무역투자 보고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일본정부 경제성장을 대폭 하향조정

- 일본정부는 11일 금년도(2011.4.1-2012.3.31) 실질성장율을 1.5%(금년 1월, 각의결정)에서 0.5%로 하향조정할 방침을 굳힘. 금년 하반기 회복을 고려하더라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생산·소비 감소로 성장을 둔화가 불가피
- 금년 2/4분기는 지진재해로 인한 생산 및 수출 감소, 3/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예상, 다만 단절된 서플라이체인의 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소비가 회복, 3/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이 예상
- 금년도 제 1, 2차 보정예산 집행도 경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고 있음. 부흥수요에 의한 설비투자나 공공투자도 서서히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2%대의 실질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급격한 엔高나 해외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이나 기업경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불투명한 부분도 남아있음.

□ 일본기업 설비투자 크게 증가

- 일본경제신문사의 2011년도 설비투자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조업의 견인으로 신흥국의 수요증가를 겨냥한 능력증강을 위한 제조업투자의 호조로 전산업의 당초 계획이 작년도 실적보다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직접투자는 35.7%의 증가율을 보여 글로벌화의 진전을 반영함.
 - 다만 미국과 유럽지역 재정불안을 배경으로 주가하락 등 세계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강한 편임. 투자 감소, 엔高에 대응한 해외이전의 가속 가능성도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7%증가, 17개 업종중 철강과 의약품을 제외한 15개 업종에서 설비투자 증가
 - 자동차는 33%의 설비투자증가율을 보임. 신흥국의 수요에 대응한 능력증강을 위한 투자가 중심, 도요타는 12.1%, 혼다는 38.1%, 닛산은 31.4%의 증가율을 보임.
 - 전기기계 분야도 1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사회인프라 분야에 중점투자하고 있는 히타치제작소와 도시바가 각각 38.3%, 12.3% 증가, 소니도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투자를 늘릴 방침임.
- 비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는 9.2%증가, 지진재해에 대한 대응이나 화력발전소 증가 등 전력분야의 설비투자가 11.2%의 높은 증가를 보임.

◆ 일본기업전략

□ 스미토모고무 태국 거점, 세계 최대급 타이어공장으로

- 스미토모 고무공업은 동남아시아의 자동차수요증가에 대응, 10억엔의 추가 투자로 생산능력을 세계 최대급으로 높일 방침, 2014년 생산능력은 1일 10만개로 2010년 말보다 2.5배가 많은 수준임.
- 스미토모 고무는 자동차산업이 집적해있는 동남아시아에 핵심거점을 구축하여 동지역의 수요급증에 대응, 해외생산비율을 높혀 엔高에 대응하려는의도도 있음.
 - 스미토모 고무는 태국공장에 2010~2012년 기간중 능력증강을 위해 총 280억엔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동 지역의 수요증가로 투자규모를 늘린 것임.
 - 현재, 태국에는 닛산자동차 공장 등이 있고, 원료인 천연고무도 조달하기 쉬운 등 핵심거점구축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임.
- 사가현에 있는 업계 제 1위의 브리지스톤 공장은 1일 생산량 4만 6천개 정도이며 여타 대규모공장도 1일 생산량 5만개 전후가 보통임. 1일 10만개는 1개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임.
 - 동남아시아 6개국의 신차판매대수가 전년비 30%나 증가함에 따라 신차용만이 아니고 개체수요도 포함하여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태국공장은 구미지역에의 수출거점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의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일본계 자동차메이커 외에 타이어 판매점 등에 널리 공급하고 있음.
- 스미토모 고무는 중국에서도 신공장을 건설중이며 브라질에서도 남미에서는 처음으로 공장을 건설, 동사 전체로 연간 생산능력은 약 1억개 정도이며 앞으로, 공장 신·증설로 현재보다 20%증가한 년산 1억 2천만 개 정도의 생산능력을 예정
- 세계 타이어공장은 일본의 브리지스톤, 프랑스 미쉐린, 미국의 굿이어 등이 상위를 점하고 있음. 세계 6위의 스미토모 고무는 태국공장을 거점공장으로 삼아 동남아지역의 수요에 대응,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도 고수준의 타이어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내 2개 주력공장도 현재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방침

◆ 경제산업성 동향

□ 산업구조심의회, 신융합산업 창출을 위한 6대 중점분야 액션프로그램 결정

○ 신융합산업 창출 액션프로그램

- 모든 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가 진전됨에 따라 종래 사업분야
 - 서비스간 구분이 없어지고, IT와 기존 산업이 융합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구조가 형성
-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경제분과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IT와 기존 산업과의 융합에 의한 신융합산업 창출을 꾀하기 위해 다음 6개 중점분야와 5개 공통 과제에 관한 액션프로그램을 결정
 - * 이 액션프로그램에서는 IT와의 융합으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시스템형 신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6개 중점 분야 >

- 스마트커뮤니티(IT x 에너지), 스마트헬스케어(IT x 의료 등), 로봇(IT x 로봇), 자동차교통시스템(IT x 자동차), 스마트에그리(IT x 농업), 콘텐츠크리에이티브(IT x 콘텐츠)

< 5개 공통 과제 >

- security 대책, 인재 육성, 국제적 제휴에 의한 글로벌화, 벤처 창출, big data의 활용 촉진

○ 향후 정책

- 앞으로 각 중점과제마다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추출
 - * 산·관·학에 의해 조성된 융합시스템산업 포럼(가칭)운영
 - * 융합시스템 설계·개발·수출 지원
 - * 산업혁신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공급
 - * 기술기기의 전략적 표준화활동 촉진

□ 라이프엔딩산업에 관한 연구결과 공표

○ 주요 제언내용

- 경제산업성은 인구의 자연감소와 초고령화가 병존하는 사회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의 약체화 현상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발상 전환과 함께 새로운 접근으로서 life ending stage(인생의 종말이나 사후에 대비, 생전에 준비를 하는 행동)창출을 제언

*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적합한 영역 구축

- 인생의 종말과 사후에 대비한 「준비」에 대한 의식개혁 및 정보 발신
- 안심하고 믿을만한 life ending stage 창출 및 지원 관련 산업(life ending 산업)의 창출, 창출 관련 환경정비

* life ending stage 지원 관련 사업자의 신뢰성이나 질의 확보, 시장환경 정비, 새로운 유대 구축

○ 금후 경제산업성의 대응

- 금년도에 life ending stage 관련 소비자용 가이드북 작성

◆ 보고서 리뷰

2011년판 JETRO 무역투자 보고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2011년판 JETRO세계무역투자보고-국제비즈니스를 부흥의 힘으로-」를 발표, FTA·신흥국시장 활용, 일본브랜드의 부흥·강화 등을 통한 일본재생을 강조

□ 세계 및 일본의 무역·직접투자

- 2010년 이후 세계경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고성장에 힘입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직접투자 모두 바닥권을 벗어나 회복세로 반전하고는 있으나 구미선진국, 신흥국 경제 모두 하강위험을 안고 있음.
- 2010년 세계 무역은 전년보다 22.2%가 증가한 15조 495억달러, 직접투자는 4.4% 감소한 1조 2,249억달러, 이중 일본의 대선진국 투자는 감소한 반면, 대개도국 투자는 회복세 반전
- 일본의 대세계무역은 수출이 전년보다 32.1% 증가한 7,670억달러, 수입은 25.2%가 증가한 6,914억달러로 모두 2009년의 대폭감소에서 크게 증가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수익악화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3.3%가 감소한 572억달러로 3년 연속감소, 그러나 4/4분기 이후 증가세로 돌아섬.
- 일본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해외비율이 각각 42.4% 및 53.1%로 해외사업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짐.

□ 지역·단형·무역대국간 FTA 증가

- 세계적으로 수출제한조치나 보조금 등의 증가함에 따라 WTO나 FTA의 수출관련 규범을 정립할 필요성이 절박
- 2011년 6월 현재 세계 전체의 FTA(발효완료분)는 199건, 지역·단형 FTA와 무역대국간 FTA가 증가
- 일본의 FTA커버율(FTA발효국과의 무역비율)이 18.2%로 상승, 그러나 인근국가들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일본도 앞으로 FTA망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특히 무역대국간 FTA를 통한 자유화/무역규범 정비라고 하는 점에서 EU와의 경제연합(economic partnership) 진전 기대

□ 통상관련 대지진의 영향 및 일본의 과제

- 동일본대지진은 일본기업의 생산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나 서플라이 체인의 급속한 회복과 함께 수출도 바닥권에서 벗어남. 해외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개선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해외사업에 의해 신흥국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과거 어느때보다도 중요함. 이에 제품개발력, 현장생산력 등의 강점을 살려 대처해나감으로써 일본 브랜드를 부활, 강화시켜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시사점

- FTA와 신흥국시장의 활용, 한국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브랜드 개발·강화등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보완하고 글로벌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